

소비자교육에 따른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을 중심으로-

서인주(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전임강사)

본 연구는 소비자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간 소비자지식,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소비자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소비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봄으로서 소비자교육의 효과 및 소비자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6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 93명,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170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결과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능력에서 소비자교육집단과 비교육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지식에서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소비자태도, 소비자기능 영역에서는 소비자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지식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비자지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지식의 경우 소비자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기 쉽다는 점과 실시된 소비자교육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 교육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식내용을 먼저 조사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비자지식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소비자태도와 기능에 점을 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비교육집단과 교육집단 모두에서 소비자 능력 중 소비자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지식영역에서는 교육집단은 소비자 법에 관한 지식, 비교육집단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낮았고, 소비자 기능영역에서는 피해구제 및 친환경적 소비자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 및 기능이 낮게 나타난 영역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소비자교육여부와 소비자교육 만족도가 소비자능력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주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만족도를 높여 소비자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소비자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는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도움이 되고 향후 소비자교육의 방향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정원, 이기춘, 김정숙, 長嶋俊介(2003). 제주지역 고령자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2), 13-29.
- 제미경, 김영옥(2002). 소비자교육과 관련변수가 초등학교 학생의 소비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 육학회지* 14(3), 25-36.